

2003년 국내 자동차 수요 전망(수정)

2003년 1/4분기 생산은 내수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힘입어
1/4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수는 2/4분기에도 다소 부진하겠지만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자동차 생산은 32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공정호/주임연구원

1/4

분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내수 37만 7천 대, 수출 38만 5천대를 기록하면서 82만 8천 대의 생산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수치는 1/4분기 생산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의 기록이며 1분기 실적으로는 네 번째로 높은 실적이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미-이라크전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2년 미출고 계약분 해소와 메이커들의 적극적인 판촉활동 때문이다. 반면 수출은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향상과 해외 재고 보충,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물량 배정 증가 등에 힘입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4분기 내수는 경기 회복 지연과 미출고 계약분의 소진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4월 내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13.5%나 감소한 12만 9,702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되면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내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라크전 종결 후에도 주요 선진권의 경제 회복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권의 자동차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와 유럽에서 현대와 기아는 높아진 품질 수준과 소비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GM대우도 본격적인 수출을 재개하고 있어 올해 수출은 전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따라 2003년 완성차 생산은 지난해보다 9만대 늘어난 324만대로 예상되며, 이로써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생산 300만대 생산 체제를 견고히 구축할 전망이다.

국내 경기는 하반기 이후 소폭 회복

지난해 우리 경제는 6.3%의 견실한 성장을 보였다. 이는 2001년의 3.1%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이며 세계

[2003년 1/4분기자동차산업동향]

(단위: 천대, %)

	2002년 1/4분기	2003년 1/4분기	전년동기비 증가율	2003년		
				1월	2월	3월
생 산	728	828	13.7	274	253	310
승용차	609	711	16.7	235	217	258
상용차	119	117	-1.4	39	36	42
내 수	382	377	-1.4	126	119	132
승용차	286	292	2.1	100	92	99
상용차	96	85	-11.7	25	27	33
수 출	338	385	14.0	128	123	134
승용차	317	367	16.0	122	117	128
상용차	21	18	-15.8	6	6	6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적으로도 중국과 몇몇 신흥공업국을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높았던 이유는 정부가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 상반기에 소비와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침체를 보였던 수출이 무선통신과 자동차의 수출증대로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각종 불안요인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미-이라크전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하며, 북핵문제로 인한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신용카드사들의 부실위험 등으로 금융시장도 불안한 상태이다. 게다가 SARS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전역으로 퍼지면서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치를 당초 5% 중반에서 4% 초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되

어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물가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추경예산편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이후 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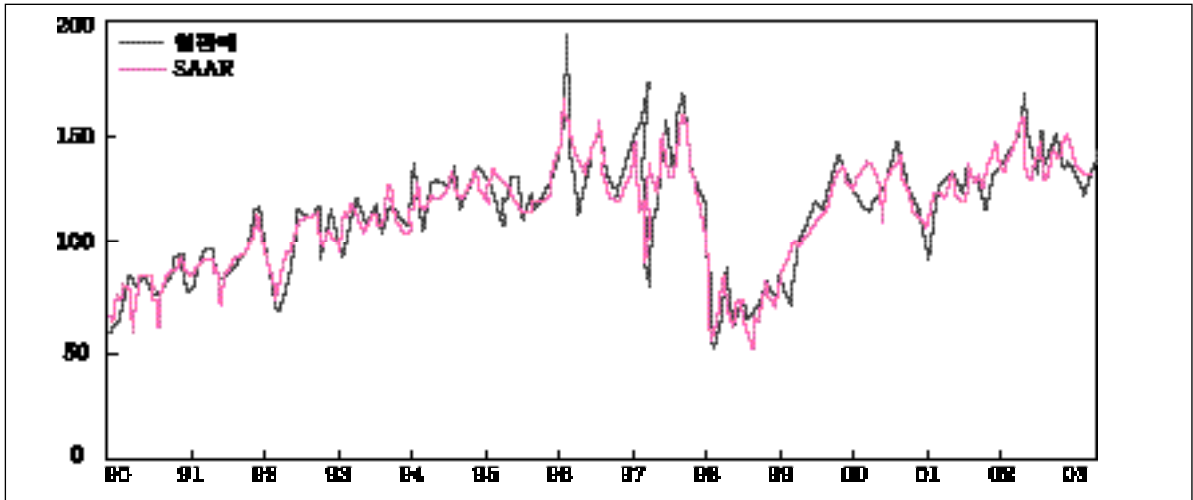
국내자동차 수요 수정전망

3월 내수 판매를 계절조정 연간화 산치(SAAR: seasonally adjusted annualize rate)로 계산해 본 결과 15.5만대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전망에 사용된 SAAR(매월 이동평균으로 계산)인 15.8만대보다 3만대가 줄어든 것이다. 통상적으로 월별 SAAR은 해당 월의 판매대수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므로 6개월 이동평균을 기준 수요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계약 건수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월의 SAAR을 기준 수요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요 예측에

【월판매와SAAR 추이】

(단위: 천대)



사용되는 주요 변수값을 변경하였다. 경제성장률은 5.7%에서 4.2%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효과와는 기존의 14만 9천대에서 10만 8천대로 4만 1천대 감소하였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판매가격은 매년 2% 인상되는 것으로 계산해왔으나 최근 메이커들이 무이자 할부판매를 비롯해 각종 판촉활동을 펼치면서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여 기존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3만 7천대 감소효과를 제거하였다. 유류가격은 1/4분기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미-이라크전이 종결된 상태에서 최근 하향 안정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전망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내수 둔화에 따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차지원법안도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전망에 반영하였다.

이상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2003년 국내 자동차 수요를 추정하여 본 결과, 지난 연말에 전망한 수치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 국내 자동차 내수는 지난 연말에 전망한 수치와 마찬가지로 16만 8천대로 전망한다.

【2003년 자동차내수전망】

	기존가정	변경가정	수요변화
기준수요	158만대	155만대	-3만대
GDP 성장률	5.7%	4.2%	4만1천대
시장판매가격	2.0%	0%	+3만7천대
국제유가	22달러/bbl	22달러/bbl	-
정부정책	-	경차지원등	+3만4천대
총수요	162만8천대	162만8천대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차급별수요전망

전체 자동차 내수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하지만 수요 예측에 사용된 가정의 변화로 인해 차급별 수요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경차의 경우 지난해 30% 이상 감소한데 이어 올 1/4분기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 31.2%나 감소하였다. 향후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수요 감소 추세가 반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형은, 경기 둔화로 이 차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출시된 신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형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체 수요가 감소하고, 소형과 SUV의 판매 증가로 소형에서의 이전 수요가 감소하고 SUV로의 대체수요는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대형은기아오피러스의판매호조로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SUV는 당초 올 7월에 예정된 경유와 LPG가격의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이라크 전으로 1/4분기에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류비 부담이 적은 디젤SUV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이추세는 2/4분기에도이어질전망이어서수요를상향 조정하였다. 미니밴은 디젤SUV로 수요가 이전하면서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경기에 민감한 상용차는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수요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버스의수요는크게감소한 반면 트럭 수요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내년부터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소형트럭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연말에 소형트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은건조한증가

1/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14.0% 증가한 38만 5천대를 기록했다. 이는 품질과 제품 이미지 개선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세계 경기 둔화로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한국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원화가치하락에따른업체들의적극적인판촉활동과 해외 재고 보충, 내수부진에 따른 수출물량 배정 증가등에힘입은결과이다.

이라크전이종결된후에도주요선진권의경제회복이

[차급별내수전망]

(단위: 천대, %)

	기존전망	수정전망	차이	수정원인
경	56	54	-2	
소형	259	295	+36	경기둔화와업체간경쟁격화
중형	275	251	-24	소비심리위축
대형	120	131	+11	오피러스판매호조
SUV	295	312	+17	1/4분기고유가로수요증가
미니밴	215	190	-25	1/4분기고유가로 SUV로수요이전
승용계	1,220	1,233	+13	
버스	157	145	-12	
트럭	251	250	-1	
상용계	408	395	-13	경기둔화
합계	1,628	1,628	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 수요는 주요 선진권을 중심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원/달러환율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규모의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출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9만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권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에서 현대와 기아가 높아진 품질 수준과 소비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GM대우도 본격적으로 수출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부진을 수출로 타개하려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수출 강화 전략도 수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종별 수출전망】

(단위 : 천대, %)

	2002	2003	증가율
승용차	1,414	1,531	8.2
상용차	96	80	-16.0
합 계	1,510	1,611	6.7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지역별로는 북미와 서유럽의 판매가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지역의 경우 수요 둔화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유럽의 경우 현대의 전략차종인 클릭, 싼타페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아도 판매망이 정비되면서 본격적인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GM대우의 경영정상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기타지역의 경우 각국의 경제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출비중이 높은 중남미의 수출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지역별 수출전망】

(단위 : 천대, %)

	2002	2003	2003
북미	695 (46.3)	751 (49.8)	780 (48.4)
서유럽	427 (28.4)	397 (26.3)	490 (30.4)
기타	379 (25.3)	361 (23.9)	341 (21.2)
합계	1,501 (100.0)	1,509 (100.0)	1,611 (100.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3년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전망치임.

주 : ()는 수출비중임.

완성차 생산, 324만대로 사상 최고 기록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외환위기 직전 288만대가 지올라갔다가 외환위기로 20만대를 밑돌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내수와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 200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수출이 정체했지만 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31만대를 생산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내수가 전년 수준에 머무는 반면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완성차 생산은 지난해보다 9만대 이상 늘어난 324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차종별 생산전망】

(단위 : 천대, %)

	2002	2003	증가율
승용차	2,651	2,764	4.3
상용차	497	475	-4.4
합 계	3,148	3,239	2.9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